Ciba, 주주이익 극대화 전략 추진

지분 10%까지 자사주 매입-소각 ... 장기전략과 주주만족 동시에

전세계 120개 국가에서 활동중인 Ciba Specialty Chemicals이 탄탄한 경영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의 자산 수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Ciba Specialty Chemicals 한국법인(대표 알란 H. 디머리)에 따르면, Ciba Specialty Chemicals 이사회는 기업의 장기 이익과 주주의 이익 모두를 고려해 Ciba Specialty Chemicals 전체의 지분 10%까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등록된 지분의 10%까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Ciba Specialty Chemicals은 주식을 한해 특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구매할 방침이며, 매입되는 주식은 2004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입은 취리히의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에 위임됐으며, 이사회는 인수 금융을 위해 이 주식들을 이용할 권리를 확보했다.

Ciba Specialty Chemicals의 그룹 회장 겸 CEO인 아민 마이어 씨는 “Ciba는 튼튼한 대차대조표와 상당한 금융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우호적인 조치를 통해 인수 기회에 대한 융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 금융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한국 Ciba Specialty Chemicals은 1990년 8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70명의 직원이 플라스틱 첨가제 및 코팅·섬유·제지·수처리 관련 사업, 생활 및 화장품 사업부 등에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합작회사로는 안료를 생산하는 대한스위스화학(울산 광역시 소재)과 플라스틱용 첨가제를 생산하는 두본정밀화학(충북 청원군 소재)이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26>